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이
지역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민한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이 지역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도교수 김 병 섭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민 한

김민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u>박 순 애</u>	(인)
부 위 원 장	<u>이 수 영</u>	(인)
위 원	<u>김 병 섭</u>	(인)

국 문 초 록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각 시·군·구의 일선 행정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단위로서 지역 주민에게 기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치·행정·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책임지는 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게 주어지는 권한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이 지역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행복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행복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선정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 및 기타 특성(재선 여부, 소속 정당, 성별 등)을 리더십의 측정기준으로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은 행정가·정치가·경영가로 분류하였고, 그 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가(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 외에 주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수(성별, 연령, 혼인 상태, 직업, 소득 수준, 교육, 종교, 가구원수 등)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변수 선정 후,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에 따른 유형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은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이 각각 행정가, 경영가, 전문가 출신일 때 주민의 행복은 정치가 일 때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영가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임할 경우 지역 주민의 행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선일 때보다 초선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야당 보다는 집권 여당에 소속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경우 주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경영가 출신이 기초자치단체장일 때 주민 행복이라는 행정 목표의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경영가 출신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임할 때 주민 행복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가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큰 수적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함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리더십과 행복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는 이 둘의 연결을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행복, 리더십,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자치제

학번 : 2010-23825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8
제1절 행복의 정의 및 주민 행복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검토	8
1. 행복의 정의	8
2. 행복의 측정	10
3. 지역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1) 성별 · 연령 · 학력과 행복	13
2) 소득과 행복	15
3) 직업과 행복	16
4) 혼인 상태와 행복	16
5) 종교와 행복	16
제2절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검토	19
1.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19
1) 행정가로서의 역할	20
2) 정치가로서의 역할	20
3) 경영가로서의 역할	21

2.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	22
1)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이 특성에 미치는 영향	22
2) 기초자치단체장 경력의 구분	23
3)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24
4)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24
5) 기초자치단체장의 성별	25
제3절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행복 간의 관계	26
1. 기초자치단체장 역할의 직접적 · 간접적 영향관계	26
2. 기초자치단체장의 유형과 주민 행복	27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28
제1절 가설 및 분석모형	28
1. 연구의 가설	28
2. 연구의 분석모형	29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표본의 특성	30
1. 연구의 대상	30
2. 분석자료 및 표본의 특성	30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34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1) 종속변수	34
2) 독립변수	35
3) 통제변수	37
2. 분석 방법	39

제4장 분석 및 연구결과	42
제1절 기술통계량 분석	42
제2절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45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46
제5장 결론	5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0
제2절 이론적 · 실천적 함의	51
제3절 연구의 한계	52

<표 목차>

[표 1] 대표적인 행복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문항	11
[표 2]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행복 간의 관계 선행연구 정리표	18
[표 3]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2
[표 4] 자치구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경력 분류표	36
[표 5]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	40
[표 6] 자치구별 평균 주민 행복도	42
[표 7] 단체장 리더십유형별 주민의 행복도의 기술통계량	43
[표 8] 리더십 유형별 주민행복에 대한 ANOVA 검정 결과	44
[표 9]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45
[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	4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29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체는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체를 전면중단하였다가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 주민직선제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체도가 실시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기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으며, 2013년 현재 5기 3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각 시·군·구의 일선 행정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단위로서 지역의 주민에게 기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기관을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그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주민의 대리인, 행정의 영역에서는 지방행정서비스 전달의 최종책임자, 그리고 경제의 영역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초자치단체는 정치·행정·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책임지는 수장의 역할과 또 그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덕목에 대한 논의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는 수직적으로는 세계화의 시대, 수평적으로는 지방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력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만족(life satisfaction)의 향상, 혹은 행복(happiness)의 증진과 다름 아니다.¹⁾

주민의 행복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는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이에 수반되는 권력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량, 혹은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정부조직 중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역할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그의 역량과 비전이 각 시·군·구 주민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연구, 주민의 행복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수행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할뿐더러,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행복에 대한 연구가 별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단체장의 연임 여부, 기초자치단체장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를 이루고, 주민의 행복에 대한 연구의 경우, 주민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인²⁾에 주목하는 것이 주를 이루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수행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수행과 권력 행사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 유형, 리더십 등에 대한 그간의 축적된 연구

1)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그리고 행복(happiness)이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셋은 동일하지 않다. 셋 간의 관계와 차이에 대해서는 후술되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 행복이다.

2) 후술되는 선행연구 정리에서와 같이,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주민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주로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취업여부, 직업, 개인소득 수준, 가구소득 수준, 교육, 종교 등이다.

에 기반을 두어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2. 연구의 목적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따라 지역발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주재복·박해육, 2009).

그간 축적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정리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연구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받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유형화 및 분류해 내거나, 성공적인 리더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재조명과 검토, 그리고 연임을 위한 조건 또는 연임이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실증 연구의 경우, 인터뷰 및 서베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공무원의 직무만족 혹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등 주로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록 수단적으로는 지방정부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민 행복의 증진이다. 즉, 그간 절대 다수의 연구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관한 분석에만 치중하였다면,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주민의 행복을 제고시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은 자치단체장의 선호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형성하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경제 전반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리더로 하여 결정된 정책에 의해 주민의 행복은 변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대한민국에서는 제2공화국 당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으나 곧바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 주민직선제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고,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기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으며, 2013년 현재 5기 3주년을 맞이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조직의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권한 또한 증대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지역 정책이 조직구성원과 지방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가치관과 판단기준, 그리고 이에 근거한 선호와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선호를 갖고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지역의 정치·행정·경제의 성격이 달라지며,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더 나아가 행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과 지역정책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그 특성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과 기타 특성(재선 여부, 소속 정당, 성별)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유형과 지역 주민의 행복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적 단위를 5기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총 225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25개의 구(區)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5기 기초자치단체장 출범 2주년이 되는 2012년 말이며, 관련 연구 자료는 서울특별시가 시의 주민등록과 과

세대장을 연계한 독자적인 표본추출 틀을 구축하여, 15세 이상 49,7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인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이용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자치단체장 유형이 지역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행정가·정치가·경영가라는 복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간의 리더십 연구에 기반을 둔 이론적·규범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소수의 실증연구는 리더로서의 기초자치단체장의 행태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절대 다수여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의 행복에 있어 영향 요인이 되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이승중, 1995; 이창원, 1999; 이창원·박희봉, 2005; 조경호·김정필,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선행 실증연구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행태과학(behavioral science)에 입각하여 유형화하고, 리더십의 유형별로 지방정부조직의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리더십 행태론이라 할 수 있다.(김예승, 2010) 즉, 이들 연구는 일차적으로 리더십 행태가 지방정부조직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리더로서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은 바로 리더 개인의 특성, 혹은 자질에 대한 분석이다. 리더 특성론(character theory)에 입각

하면, 리더십의 형성과 발휘에 리더의 성별, 학력, 성향, 도덕성,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리더 특성론을 이용한 리더십 연구는 리더의 성별, 학력, 정치적 성향, 과거 경력 등이 리더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김예승, 2010) 하지만 이들 연구는 리더의 개인적 특성을 주요 요인이라기보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하나로 파악하며, 특히 이를 주민의 행복과 연결 지은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 및 기타 특성(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소속 정당, 성별)을 리더십의 측정기준으로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특정 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에 입각한 선호와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은 그 개인의 과거 경력과 기타 특성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실증분석으로서, 우선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리더십, 그리고 지역 주민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변수를 도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실증분석을 위하여 도출된 변수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과 기타 특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제2장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장의 1절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힌 후, 지역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3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의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1절 행복의 정의 및 주민 행복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검토

1. 행복의 정의

행복은 그 사전적 의미로서,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 상태를 특정 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8). 따라서 행복의 개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또 형이상학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계량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행복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Veenhoven(1999, 2010)은 행복을 ‘한 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 느끼게 되는 전반적인 감정(the overall appreciation of one’s life as a whole)’로 정의하고, 이는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과 동의어라고 한다. 즉, 삶의 만족, 혹은 행복은 시간 지속의 차원(time)에서는 일시적인 감정인 쾌락(pleasure) 혹은 최상의 경험(peak-experience)과 구분되고, 영역(scope)이라는 차원에서는 부분적 만족(part-satisfaction)과 구분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OECD를 필두로 한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경제적 요인만을 중시하여 국내총생산(GDP · Gross National Product)과 국민 생활의 만족도나 삶의 질을 연결시키려

하였으나, 최근에는 ‘GDP 지상주의’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다양한 측정 대안을 여러 국가가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3) 4)}

행복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Campbell 등(1976)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 내면에 고유한 것이다. 즉, 건강, 부, 명예, 쾌락 등과 같은 외면적인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조건 자체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행복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 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Bradburn, 1969) 셋째, 행복은 한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비록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정서 반응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행복의 핵심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최영출 · 이지혜, 2013)

행복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 즉 객관적 접근법, 주관적 접근법, 종합적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태종 외, 2000) 첫째, 객관적인 접근법에서는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사회지표가 많이 사용되며, 그 내용으로는 경제수준, 평균수명, 직업의 기회와 직업선택의 다양성, 교육의 기회와 교육여건, 범죄율 혹은 교통사고율, 문화적 시설, 의료 보장 등이 있다. 이들 조건은 대개 객관적으로 지표화 될 수 있다. 둘째, 주관적인

3) GDP 개념을 체계화한 사이먼 쿠즈네츠도 1934년 성장의 양과 질은 분명히 구분된다며 일찍이 삶의 질의 척도로서의 GDP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으며, 리처드 이스털린은 1974년 “GNP와 행복수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GNP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와 아마트리아 센 교수는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2008년부터 GDP를 대신해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수립하는데 몰두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경우 2010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행복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더해 기존의 국민통계조사(census)에 행복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0년 6월 각료회의에서 “행복도 지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통계를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복과 관련된 척도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탄이 있다. 비록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권이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행복한 나라’인 부탄에서는, 심기에 왕추크 국왕이 1974년 “GDP가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GNH · Gross National Happiness)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정부가 건강 · 시간 활용 방법 · 생활수준 · 공동체 · 심리적 행복 · 문화 · 교육 · 환경 · 정치등 9개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GNH를 측정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접근법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 심리적 만족감으로 파악한다.(이태종 외, 2000) 행복은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인의 삶이 개인의 가치 기준이나 기대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셋째, 주관적 접근과 객관적 접근을 종합하는 접근이 있다.(임희섭, 1996) 이 접근에서는 행복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파악하며, 대체로 행복에 대한 객관적 조건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객관적 조건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 · 상황적 조건을 의미하며, 주관적인 조건은 한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는 행복감, 안정감, 성취감, 심리 상태 등을 의미한다. 이상의 접근들을 검토하였을 때, 행복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 간에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차원의 적합성을 주장할 수만은 없다.(송건섭,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접근에 따라 행복을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행복”으로 정의한다.

행복은 참살이(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행복(subjective happiness · 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 개념 구분에 있어 엄밀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을 동일시하는 것이 행복을 측정하는 설문을 구성할 때의 특징이다.(Adler, 2013)

2. 행복의 측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행복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다. 주민 · 시민 · 국민 등의 행복에 대한 측정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설문 문항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표 1] 대표적인 행복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문항

설문	변수	설문 문항
General Social Survey (미국)	행복	귀하는 오늘날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떠하십니까? 귀하는 스스로가 (매우 행복함), (어느 정도 행복함), (별로 행복하지 않음) 중 어디에 분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World Values Survey (스웨덴)	삶의 만족	귀하는 당신의 전반적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동봉된 용지(card)를 이용하여 답변해주시오. (용지에는 1-10 척도로 1이 “매우 불만족”, 10이 “매우 만족”으로 표기되어 있음)
European Social Survey (유럽연합)	행복	귀하는 당신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봉된 용지(card)를 이용하여 답변해주시오. (용지에는 0-10 척도로 0이 “매우 불행함”, 10이 “매우 행복함”으로 표기되어 있음)
European Social Survey (유럽연합)	삶의 만족	귀하는 당신의 전반적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동봉된 용지(card)를 이용하여 답변해주시오. (용지에는 0-10 척도로 0이 “매우 불만족”, 10이 “매우 만족”으로 표기되어 있음)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유럽연합)	행복	다음과 같은 1-10의 척도를 참고하여,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신지를 답변해주시오. 여기서 1은 “매우 불행하다”, 10은 “매우 행복하다”입니다.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유럽)	삶의 만족	귀하는 당신의 전반적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오. (1-10 척도로 1이 “매우 불만족”, 10이 “매우 만족”을 의미함)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독일)	삶의 만족	마지막으로, 귀하는 전반적으로 삶에 얼마나 만족하시는 지를 답변해주시오. 답변은 다음과 같은 척도를 이용해 기입해주시오. (0은 ‘완전히 불만족’, 10은 ‘완전히 만족’)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영국)	삶의 만족	귀하는 전반적으로 삶에 얼마나 큰 만족, 혹은 불만족을 느끼십니까? (1-7의 척도에서, 1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은 ‘완전히 만족한다’)

※Adler(2003)으로부터 재구성

위의 표에서 언급된 기관의 설문과 더불어, 그간 Afrobarometer Survey,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Latinbarometro Survey 등의 유사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이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행복과 관련된 대규모 측정의 절대 다수가 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센터에서 매해 출간하는 「삶의 질과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설문조사가 대표적이며, 전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지수의 개발 및 행복에 대한 설문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3. 지역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주로 자아존중감, 개인의 성격,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등을 영향 요인으로 파악하고, 후자의 경우 주로 성별, 연령, 학력 (교육수준), 소득 수준, 직업, 혼인 상태, 종교 등을 영향 요인으로 파악한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 중 특히 사회경제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다시 각 요인, 즉 성별, 연령, 학력 (교육수준), 소득 수준, 직업, 혼인 상태, 종교 등과 행복과의 관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 연령 · 학력과 행복

국내외의 문헌을 연구해보면, 성별의 차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에서는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w & Whitley, 1976; Campbell et al., 1976; Sauer, 1977) 연령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나이가 비교적 적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Bradburn & Caplovitz, 1965), 나이에 따른 행복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Cameron, 1965; Sauer, 1977), 나이가 비교적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Bortner & Hultsch, 1970)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과 행복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antril(1965)이 최초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시도하였고, 그는 1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반면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연령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radburn(1969)의 분석에 따르면, 연령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미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행한 설문을 분석한 Spreitzer & Snyder(1974)는 남자의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해지고, 여성의 경우 덜 행복해진다. 동일한 연구결과가 World Values Study Group의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반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는데, 다만 그 영향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nglehart(1990)는 Eurobarometer Survey의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특히 고연령자의 경우, 연령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 상태, 교육의 정도, 소득의

정도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에 따르면, 고연령자의 경우, 비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상당수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기도 하지만, 삶 자체에 대한 기대(aspirations) 및 목표와 결과 간의 괴리(goal-achievement gap)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해진다. Witt et al.(1980)에 따르면, 연령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도구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도출된다.

시대별로 연령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흥미롭게도,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주로 연령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연령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0년대, 즉,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주로 연령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U자형(U-shaped)으로 파악한다. 대표적으로, Gerdtham & Johannesson(2001)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5,000명의 샘플을 도출·분석한 결과, 연령과 행복 간의 관계는 U자형을 띄며, 특히 가장 행복하지 않은 연령대는 '45세부터 64세'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Frijters & Beatton(2008)에서도 U자형의 연령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또 이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최근 심리학에서는 연령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는 반면, 경제학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U자형을 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바는, Simring(2013)에 따르면, 그간의 연구들이 타당성 확보가 여의치 않았고, 또 계속해서 상호 충돌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던 이유가 충분한 장기 연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1920년대의 세계 대

공황 등의 역사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학력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행복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는 Ball & Chernova(2008)이 있다.

2) 소득과 행복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다른 행복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만큼 상반된 결과를 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Easterlin(1974)이 경제성장과 행복 간의 관계가 반드시 비례적이지만은 않다는 도전적인 주장을 제기한 이래⁵⁾,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 최근의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Ball & Chernova(2008)와 Hagerty & Veenhoven(2003)이 있다. Ball & Chernova(2008)에 따르면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구분과 상관없이 모두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소득수준이 소득 외의 요인, 즉 혼인 상태, 성별, 연령, 직업, 종교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중 비금전적 요인에 비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Hagerty & Veenhoven(2003)가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주류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증가는 국가 전체의 행복 수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김명소(2003)가 수행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5) 이를 주로 ‘행복의 역설’ 혹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3) 직업과 행복

직업은 한 사람의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며, 근로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Smith, 2007) 직업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직업과 행복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Inglehart(1990)의 유럽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실업자 중 61%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반면, 직업이 있는 자의 78%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Campbell et al.(1976)의 미국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실업자 중 12%만이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 응답자의 30%가 매우 행복하다고 답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고용 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서 주로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자신감(self-esteem), 금전적인 보상 등과 결부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4) 혼인 상태와 행복

혼인 상태와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게, 기혼자가 그렇지 않은 자(독신, 이혼, 별거, 사별, 동거 등)에 비하여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다.(Kahneman et al., 1999; Myers, 2003; Diener et al., 2008; Eid & Larsen, 2008)

5) 종교와 행복

종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대다수의 연구결과는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행복하다고 한다. 다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공통으로 지적한다. Inglehart(1990)는 163,000명의

유럽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회에서 매주 1회 예배를 보는 이들 중 84%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이 높다고 답한 반면, 종교생활을 하지 않은 이들 중 77%만 그러하다고 하였다. Witter et al.(1985)이 수행한, 미국 중심의 28개의 종교와 행복 간의 연구의 메타분석에서도 이는 확인되는 바,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보다 행복하고, 특히 기독교인일수록 그러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삶의 의미(meaning)와 목적(purpose)이 더욱 뚜렷하고, 그러므로 삶의 만족 또한 이와 관련하여 더욱 큰 것으로 지적한다. 이에 더하여, Moberg & Taves(1965), 그리고 Kaldor et al.(1984) 등에 따르면 종교공동체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종교생활과 행복 간의 긍정적 관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사회경제학적 요인들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행복 간의 관계 선행연구 정리표

영향요인	영향관계	연구자
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함	조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
성별	행복에 있어 성별차 무의미함	Andrew & Whithy, 1976; Campbell et al., 1976; Sauer, 1977
연령	나이가 적을수록 행복함	Bradburn & Caplovitz, 1965
연령	나이에 따른 행복 정도 차이 없음	Cameron, 1965; Sauer, 1977; Witt et al., 1980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행복함	Bradburn, 1969; Bortner & Hultsch, 1970; Campbell et al., 1976; Inglehart, 1990
연령	나와 행복 간의 관계는 U자형임	Gerdtham & Johannesson, 2001; Frijters & Beaton, 2008
연령과 성별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고 여성은 불행함	Spreitzer & Snyder, 1974
학력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함	Ball & Chernova, 2008
소득	소득과 행복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님	Easterlin, 1974
소득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함	김명소, 2003; Hagerty & Veenhoven, 2003; Ball & Chernova, 2008
직업	직업이 있으면 더 행복함	Inglehart, 1990
혼인 상태	기혼자가 더 행복함	Kahneman et al., 1999; Myers, 2003; Diener et al., 2008; Eid & Larsen, 2008
종교	종교가 있으면 더 행복함	Moberg & Taves, 1965; Kaldor et al., 1984; Witter et al., 1985; Inglehart, 1990

제2절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검토

본 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왜 지역 주민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다양한 권한과 역할, 개인적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의미한다.(제9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제9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사무 총괄(제101조), 국가사무의 위임(제102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제103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제105조) 등의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는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제 역할수행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인 동시에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하급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임수복, 2002)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중심적 행위자이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책의 추진과 예산의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박종민 외, 1999) 게다가 기초자치단체장을 견제할 만한 제도의 활용(주민소환제 등)과 기관 및 단체(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질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과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박해육 · 주재복, 2008)

이상과 같은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보다 주목해보면,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크게 행정가형, 정치가형, 경영가형으로 유형을 분류함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임수복, 2002)

1) 행정가로서의 역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역할은 자치행정조직의 대표, 조직 관리자, 행정의 집행자, 행정역량의 수행자, 주민의 민원관리 및 해결자 등의 역할을 포괄한다. 따라서 행정가의 역할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주어진 사무를 관리 및 집행하는 것이다(임수복, 2002)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혁신,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예산 절약과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최항순, 2006). 즉, 행정가로서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자치행정조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정의 효과성 · 능률성 ·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치가로서의 역할

주민의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치적 선호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 지역의 권위적 가치재배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이 과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대내관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재자 및 분쟁(갈등)해결자로서의 역할,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비롯하여 지역 대외관계에 있어 교섭자로서의 역할 등 또한 기대된다.(임수복, 2002) 즉, 지방의회, 지역사회, 중앙정부, 정당, 기초지방자치단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환경요소들과 참여, 협조, 지지 확보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최향순, 2006)

3) 경영가로서의 역할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영가로서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경영가로서의 역할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대하며, 실제 다수의 재계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다 (일례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무려 7명이 재계 출신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이승중, 1995)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과 주민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예승, 2010; 이승중, 1995) 즉, 자치단체장의 경영가형으로서의 역할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제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행정의 생산성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양덕순·강창민, 2006) 게다가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

1)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이 특성에 미치는 영향

경력(career)은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 정리는 “한 개인이 평생 동안 거쳐 온 직무의 경험과정으로서 개인이 평생 동안 가지게 되는 경험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은 개인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특성론에 입각하여, 그의 경력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과거의 경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은 그의 리더십 발휘에 있어 영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은 그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지역(주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인터뷰 및 회고록 등을 통하여 과거 경력이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언하였고, 지역 주민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이 그의 지역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조임곤, 2005)

2) 기초자치단체장 경력의 구분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에 입각한 유형 구분은 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 단체장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령, 정당, 학력, 출신지역, 경력 등에 주목한다.(이승중, 1995; 노우영·최성락, 2007) 그리고 리더십 특성론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유형화할 수 있는 요소로는 과거 경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 선행연구에서는 과거 경력에 따라 단체장의 유형을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노우영·최성락,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 지역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과거 경력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을 행정가, 정치가, 경영가, 전문가(기타)로 유형화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수행이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가치관과 판단기준은 과거 경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며, 이는 다시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가형

행정가형은 행정가 경력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자, 공무원 혹은 군인으로서 봉직한 자, 기타 협의의 의미에서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정치가형

정치가형은 지방의회 의원(광역 및 기초의회), 지역에서 정당 활동 경험

이 있는 자, 정당인, 준관변단체 출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경영가형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임직원, 기타 자영업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포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기초자치단체장이 초선일 경우,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이 1차적인 관심이자 목표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된 정책목표를 주민 여론에의 수렴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지출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복지정책정향론이라고 한다.(이승중 · 김홍식, 1992; 유재원, 1999) 이에 입각해서 추론해보았을 때, 주민의 여론을 보다 잘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선보다는 초선일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4)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에 소속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당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과 상호 영향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발휘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Herson & Bolland, 1990)하는 한편, 집권 여당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을 상위정부인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지출 및 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 등 주민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정책의 추진에 보다 큰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5) 기초자치단체장의 성별

기초자치단체장의 성별에 따른 특성이 리더십의 발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다만, 성별과 리더십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라 리더가 조직의 직무행태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존재한다.(권경득, 2012) 또 Dolan(2000)은 미국 고위관리직(SES)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전 과정에서 우선하는 목표 설정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제3절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행복 간의 관계

1. 기초자치단체장 역할의 직접적 · 간접적 영향관계

앞서 논의되었듯,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과 지역 주민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견해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이후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역 주민이 지역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치단체장을 지목한다는 것이다.(김현조 · 박영강, 2006)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조직의 수반으로서 행정가의 역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정치가의 역할,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경영가의 역할이 동시에 주민들에 의해 기대되는 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막강한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그리고 예산 편성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염두에 두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주민에 대한 직접적 · 간접적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논의된 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기대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이후,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경제의 영역과 복지의 영역 모두를 포괄하게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두 영역의 발전을 통한 삶의 질 고양,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하게 되었다.

2. 기초자치단체장의 유형과 주민 행복

기초자치단체장이 특정 정책을 선택·결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의 과거 경력과 기타 특성에 의하여 형성된 가치관과 판단기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에 있어 상황 논리가 개입할 여지 또한 다분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요인을 지목하자면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이를 달리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라는 것이다. 리더십에 대한 측정과 유형화에 대한 논의는 실로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과 기타 특성에 기반을 두어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수행과 정책 선택 및 결정에는 그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그의 과거 경력과 기타 특성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과 기타 특성에 따른 유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에 대한 특징만 간략히 나열하였을 뿐, 이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발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지역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경력과 기타 특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의 유형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3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하여 가설을 도출하고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1절에서는 연구의 가설 및 분석모형을 논의하고, 2절에서는 연구의 대상 및 표본의 특성에 대한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방법을 기술한다.

제1절 가설 및 분석모형

1. 연구의 가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과 지역 주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행복에 있어 분명한 영향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가·정치가·경영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그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은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그의 특성인 과거 경력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수행의 배경에는 그의 개인적 선호와 판단이 작용하고(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이는 다시 그의 과거 경력에 의하여 형성된 가치관과 판단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이라는 그가 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개인적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에 의한 리더십 유형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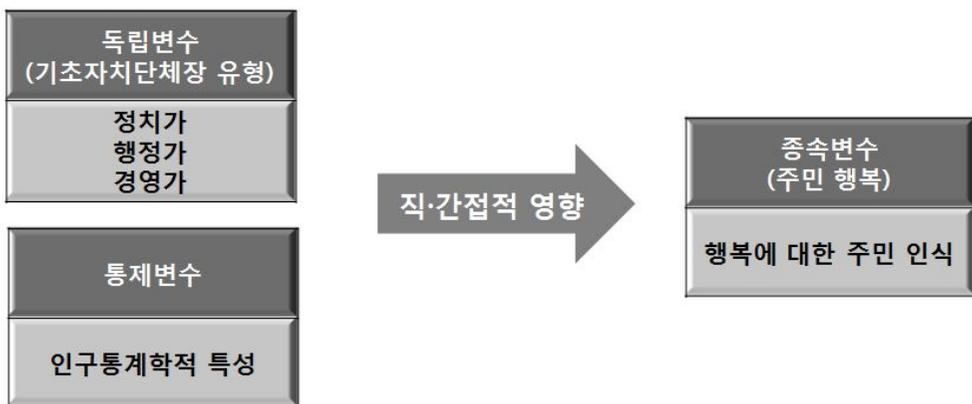
연구가설 :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에 따른 유형은 주민의 행복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연구의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에 따른 유형은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해보고자 아래의 그림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표본의 특성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연구의 대상이 됨으로, 공간적 범위는 5기 기초단체장이 선출된 225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25개의 구(區)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5기 기초자치단체장 출범 2주년이 되는 2012년 말이다.

2. 분석자료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에 따른 유형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서울특별시청 및 (재)서울연구원의 의뢰로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주)현대리서치연구소 컨소시엄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12년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2만 가구(15세 이상 남녀 49,758명)이며,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조사를 택하였다. 유효 표본은 49,758명이며, 표본 추출은 층화군집추출을 행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0.46\%p$ 이다.

설문 응답자, 즉 가구원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거주 지역은 25개 구에 2.19%에서 5.32%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중구가 가장 작았고, 송파구가 가장 많았다.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은 전체 가구원 49,758명중 24,034명(48.3%)은 남성응답자, 25,724명(51.7%)은 여성응답자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3%가량 높았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40대가 12,030명으로 24.1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학력수준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하가 24,336명(48.91%)으로 응답자 절반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6,483명인 33.13%이었으며 중등학교 졸업 이하는 8,371명으로 전체의 16.82%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65.49%인 32,586명이 기혼이었고, 27.36%인 13,616명이 미혼이었다. 사별한 가구원은 2,161명인 4.34%였으며, 이혼 및 별거는 2.8%를 차지하는 1,395명이었다. 소득의 경우, 25.79%인 12,831명이 300~400만원 구간에 속하였고, 다음으로 비슷한 비율(25.62%)의 12,749명이 400~500만원 구간에 속하였다. 500만원 이상도 30.25%에 달하였다. 미취업자인 학생과 주부가 20,760명으로서 41.7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상용근로자가 20,326명으로 40.85%에 달하였다.

한편 종교의 경우, 무교가 과반을 웃도는 50.76%(25,256명)에 달하였고, 다음으로 기독교(개신교)가 14,039명으로서 28.21%에 달하였다. 천주교와 불교는 비슷한 비율(각각 10.43%와 10.23%)을 차지하였다.

[표 3]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자치구별 응답자 분포

자치구	빈도	백분율(%)	자치구	빈도	백분율(%)
종로구	1,203	2.42	노원구	2,464	4.95
중구	1,090	2.19	양천구	2,155	4.33
용산구	1,578	3.17	강서구	2,367	4.76
은평구	2,186	4.39	구로구	2,286	4.59
서대문구	1,704	3.42	금천구	1,666	3.35
마포구	2,006	4.03	영등포구	2,106	4.23
성동구	1,656	3.33	동작구	2,175	4.37
광진구	1,977	3.97	관악구	2,483	4.99
동대문구	1,484	2.98	서초구	1,978	3.98
중랑구	2,191	4.40	강남구	2,220	4.46
성북구	2,164	4.35	송파구	2,645	5.32
강북구	1,979	3.98	강동구	2,097	4.21
도봉구	1,898	3.81	합계	49,758	100.00

※ 응답자의 주요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비율 %)	변수	범주	빈도 (비율 %)
성별	여성	25,724(51.70)	혼인	미혼	13,616(27.36)
	남성	24,034(48.30)		기혼	32,586(65.49)
연령	10대	4,118(8.28)		이혼/별거	1,395(2.80)
	20대	7,436(14.94)		사별	2,161(4.34)
	30대	9,018(18.12)	직업	무직(학생,주부)	20,760(41.72)
	40대	12,030(24.18)		상용근로자	20,326(40.85)
	50대	9,664(19.42)		임시/일용근로자	3,518(7.07)

	60대 이상	7,492(15.06)		무고용 자영업자	2,980(5.99)
학력	중졸 이하	8,371(16.82)		유고용 사업자	1,859(3.74)
	고졸 이하	16,483(33.13)		무급가족종사자	314(0.63)
	대졸 이하	24,336(48.91)		기타	1(0.00)
	대학원 이상	568(1.14)		기독교	14,039(28.21)
				천주교	5,190(10.43)
주관 적 계층	하하	1,026(2.06)	종교	불교	5,092(10.23)
	하상	11,010(22.13)		유교	104(0.21)
	중하	26,652(53.56)		기타 종교	77(0.15)
	중상	10,234(20.57)		무교	25,256(50.76)
	상	836(1.68)			
소득	100만원 이하	638(1.28)	가구원 수	1인	2,243(4.51)
	100~200만원	2,671(5.37)		2인	8,420(16.92)
	200~300만원	5,815(11.69)		3인	13,880(27.90)
	300~400만원	12,831(25.79)		4인	21,241(42.69)
	400~500만원	12,749(25.62)		5인 이상	3,974(7.99)
	500만원 이상	15,054(30.25)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체적으로 선정된 변수와 및 측정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행복에 대한 주민의 인식으로서, 주민·시민·국민 등의 행복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설문 문항과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울시서베이의 경우 행복과 관련된 문항이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행복은 가정생활의 행복과 사회생활의 행복(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을 따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였고, 이를 주민 행복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서울시서베이에서는 가정생활의 행복과 사회생활의 행복 외에도 건강상태의 행복, 재정상태의 행복, 주위 친구 및 친지와 관계의 행복 또한 동일한 척도로 측정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세 항목을 종속변수의 도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 세 항목으로 측정되는 행복은 종속변수로 파악되기 보다는, 오히려 가정생활의 행복과 사회생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6)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기초자치단체장 변수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에 대한 변수의 조작은 노우영 · 최성락(2005), 박영규 · 김성준(2008) 연구를 바탕으로 경력을 분류하였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을 행정가 · 정치가 · 경영가로 분류하고, 그 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가(기타)로 분류하였다.

행정가로 분류되는 이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고등고시 출신의 공무원 등이고, 정치가로 분류되는 이는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입법보좌관, 연임 기초자치단체장 등이며, 경영가는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출신, 자영업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포함) 등이다. 세 분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법조인, 교수, 교사, 기자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에 따른 분류 및 그 외의 특성에 대한 분류(재선 여부, 소속 정당, 성별)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에 기재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경력을 1차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관련 정보에는 당선자의 직전 경력과 전 생애 중 가장 큰 시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경력에 대한 구분 없이 (즉, 어떠한 분류 기준도 없이) 혼합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분류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요청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의 인물 데이터베이스⁷⁾를 활용하였다.

7) 본 연구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홈페이지와 더불어 주로 활용된 주요 일간지 인물 데이터베이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people.joins.com); 조선일보(db.chosun.com/man/); 동아일보 (inmul.donga.com). 특히 중앙일보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는 1985년도 국내 최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한 이래 30만 여명의 국내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프로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인사의 출생지, 과거 및 현재 소속, 학력사항, 가족관계 사항 등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가장 활용 빈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당선 직전 경력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법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전 생애 중 가장 큰 시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경력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법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자를 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재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의 경력은 전자와 후자에 대한 구분이 없어,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은 연구자 임의대로 분류하였는데, 그 방법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 중 최소 5년 이상이 경과된 것을 우선 분류한 후, 그 중 가장 시간적 비중이 큰 것을 대표경력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에 입각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장의 대표 경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요약하면 서울특별시에는 각각 14명의 정치가 출신, 7명의 행정가 출신, 2명의 경영가 출신, 2명의 전문가 출신 기초자치단체장이 현재 재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치구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경력 분류표

자치구	분류	대표 경력	자치구	분류	대표 경력
종로구	경영가	건축사 / 건축사무소 대표	노원구	정치가	민주당 정당인
중구	행정가	서울시 행정부시장	양천구	정치가	민주당 지역위원장
용산구	정치가	민주당 정당인	강서구	정치가	제17대 국회의원
은평구	정치가	국회의원 보좌관	구로구	행정가	서울시 감사관
서대문구	경영가	회계사무소 대표	금천구	전문가	동아대학교 교수
마포구	정치가	민주당 정당인	영등포구	정치가	영등포구의회의장
성동구	정치가	민주당 사무총장	동작구	행정가	마포구청 부구청장
광진구	행정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	관악구	정치가	민주당 대변인

가 높았던 데이터베이스이다.

자치구	분류	대표 경력	자치구	분류	대표 경력
동대문구	정치가	민주당 부대변인	서초구	행정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중랑구	행정가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강남구	행정가	강북구 부구청장/ 여성정책보좌관
성북구	정치가	민주당 정당인	송파구	전문가	변호사
강북구	정치가	민주당 정당인	강동구	정치가	서울시의원
도봉구	정치가	민주당 부대변인			

3) 통제변수

주요 독립변수 외에 주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수((성별, 연령, 혼인 상태, 직업, 소득 수준, 교육, 종교, 가구원수 등)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조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가 존재함과 동시에, 행복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연구(Andrew & Whitley, 1976; Campbell et al., 1976; Sauer, 1977)도 존재하기에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연령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Bradburn & Caplovitz, 1965), 나이가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Bradburn, 1969; Bortner & Hultsch, 1970; Campbell et al., 1976; Inglehart, 1990), 나이와 행복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Cameron, 1965; Sauer, 1977; Witt et al., 1980), 나이와 행복 간의 관계는 U의 형태를 띤다는 최근의 연구(Gerdtham & Johannesson, 2001; Frijters & Beaton, 2008) 등이 상존하므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저학력에 비하여 행복하다는 연구(대표적인 최근 연구로는 Ball & Chernova(2008)이 있음)에 입각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행복의 영향요인으로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과 행복이 반드시 정(+)의 관계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Easterlin(1974)의 주장과 이에 후속되는 연구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견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의 정도 또한 증가한다는 것(김명소, 2003; Hagerty & Veenhoven, 2003; Ball & Chernova, 2008)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직업 또한 무직에 비하여 어떠한 유형이든 직업이 있을 경우 행복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연구의 주류(Inglehart, 1990)이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혼인 상태의 경우, 비혼의 유형을 막론하고 기혼자가 더 행복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에 이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Kahneman et al., 1999; Myers, 2003; Diener et al., 2008; Eid & Larsen, 2008)

마지막으로 종교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신앙을 견지하는 자가 무신론자에 비하여 행복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Moberg & Taves, 1965; Kaldor et al., 1984; Witter et al., 1985; Inglehart, 1990)임으로 이 또한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그 밖에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이 속한) 계층, 가구원 수, 개인의 이념적 정향 등의 기타 인구 사회적 특징들은 독립변수로서 통제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변수로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상대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 · 독립변수 · 통제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에 대한 간추린 설명은 다음 장의 [표 5]와 같이 정리 · 제시되었다.

2. 분석 방법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에 따른 유형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STAT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

종류	변수	내용	측정
종속 변수	행복	가정생활행복 사회생활행복	10점 척도(0= 가장 불행한 상태, 10= 가장 행복한 상태)
독립 변수	과거경력유형	행정가형	행정가 출신, 경영가 출신, 전문가 출신, 정치가 출신(기준더미)
		경영가형	
		기타(전문가 등)	
		정치가형	
	재선여부		초선(기준더미), 재선
	소속정당	여당, 야당	여당(기준더미), 야당
통제 변수	단체장 성별	남, 녀	남(기준더미)
	가구원성별	남, 녀	남(기준더미)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직업	상용근로자	무직:학생 및 주부(기준더미),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무고용 자영업자, 유고용 사업자, 무급 가족봉사자, 기타
		임시/일용근로자	
		무고용자영업자	
		유고용사업자	
		무급가족봉사자	
		기타	
무직			
주관적 계층		하하, 하상, 중하, 중상, 상	
혼인 상태	기혼		기혼, 이혼 및 별거, 사별, 미혼(기준더미)
	이혼 및 별거		

		사별 미혼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종교	개신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기타, 무교(기준더미)
		불교		
		천주교		
		유교		
		기타		
무교				
이념성향			5점 척도 (1= 진보적, 5= 보수적)	

제4장 분석 및 연구결과

제1절 기술통계량 분석

총 응답자 49,758명의 평균 주민 행복은 6.952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별 평균 주민 행복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남구가 7.294로 가장 높은 평균 주민 행복을 나타냈고, 중랑구가 6.545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각 자치구별 평균 주민 행복도를 표로 나타내면 [표 6]와 같다.

[표 6] 자치구별 평균 주민 행복도

자치구	관측치	평균 주민 행복	자치구	관측치	평균 주민 행복
종로구	1,203	7.092	노원구	2,464	6.873
중구	1,090	6.907	양천구	2,155	7.106
용산구	1,578	6.966	강서구	2,367	7.227
은평구	2,186	6.781	구로구	2,286	7.002
서대문구	1,704	7.341	금천구	1,666	7.034
마포구	2,006	6.986	영등포구	2,106	6.716
성동구	1,656	6.310	동작구	2,175	7.067
광진구	1,977	7.020	관악구	2,483	6.949
동대문구	1,484	6.425	서초구	1,978	7.382
중랑구	2,191	6.545	강남구	2,220	7.294
성북구	2,164	7.048	송파구	2,645	7.302
강북구	1,979	6.989	강동구	2,097	6.255
도봉구	1,898	6.936	합계	49,758	6.952

[표 7] 단체장 리더십유형별 주민의 행복도의 기술통계량

리더십 유형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행정가	가정생활행 복	13,917	7.036	1.141	0	10
	사회생활행 복	13,917	7.097	1.265	0	10
	주민 행복	13,917	6.974	1.289	0	10
정치가	가정생활행 복	28,623	6.845	1.216	0	10
	사회생활행 복	28,623	6.947	1.333	0	10
	주민 행복	28,623	6.743	1.350	0	10
기업가	가정생활행 복	1,704	7.341	1.222	0	10
	사회생활행 복	1,704	7.451	1.351	0	10
	주민 행복	1,704	7.231	1.353	0	10
기타 (전문가)	가정생활행 복	5,514	7.175	1.177	2	10
	사회생활행 복	5,514	7.284	1.335	2	10
	주민 행복	5,514	7.067	1.276	2	10

한편, [표 7]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대상인 주민의 수는 자치단체장이 행정가 출신인 경우 13,917명, 정치가 출신인 경우 28,263명, 기업가 출신인 경우 1,704명, 전문가 출신인 경우 5,514명으로 자치단체장이 정치가 출신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업가 출신인 경우가 가장 적었다. 행복도의 평균은 각각에 대해 6.974, 6.743, 7.231, 7.067으로,

기업가 출신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정치가 출신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주민 행복의 평균이 과연 자치단체장의 경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그 결과 F값은 245.12(P<0.01)로 연구의 회귀식은 유의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에 따라 평균적인 주민의 행복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주민의 행복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에 따라서 기업가 출신, 전문가 출신, 출신, 정치인 출신의 순서로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8] 리더십 유형별 주민행복에 대한 ANOVA 검정 결과

행복지표	Variable	Mean	Std. Dev.	F 값	유의확률
가정생활 행복	행정가 출신	7.036 ^b	1.141	174.90	0.0000
	정치가 출신	6.845 ^a	1.216		
	기업가 출신	7.341 ^d	1.222		
	전문가 출신	7.175 ^c	1.177		
사회생활 행복	행정가 출신	7.097 ^b	1.265	197.63	0.000
	정치가 출신	6.947 ^a	1.333		
	기업가 출신	7.451 ^d	1.351		
	전문가 출신	7.284 ^c	1.335		
주민 행복	행정가 출신	6.974 ^b	1.289	224.76	0.0000
	정치가 출신	6.743 ^a	1.350		
	기업가 출신	7.231 ^d	1.353		
	전문가 출신	7.067 ^c	1.276		

주: 사후분석(Scheffe): a<b<c<d.

제2절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1차적으로 알 수 있었고, 또 다중공선성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행복은 주민의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주민 행복은 학력, 소득, 주관적인 계층 인식, 가구원 수, 이념적 정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9]과 같다.

[표 9]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주민 행복	1.000								
2.가정생활 행복	0.902***	1.000							
3.사회생활 행복	0.904***	0.632***	1.000						
4.주민연령	-0.147** *	-0.130** *	-0.136** *	1.000					
5.학력	0.144***	0.130***	0.131***	-0.070** *	1.000				
6.소득	0.214***	0.196***	0.192***	-0.162** *	0.200***	1.000			
7.주관적 계층	0.145***	0.130***	0.132***	-0.020** *	0.184***	0.236***	1.000		
8.가구원수	0.110***	0.113***	0.086***	-0.211** *	0.048***	0.470***	0.121***	1.000	
9.이념성향	0.155***	0.141***	0.138***	-0.074** *	0.063***	0.044***	0.056***	0.047***	1.000

* p<0.1, ** p<0.05, *** p<0.01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R^2 값이 0.11로 낮아 설명력은 높지 않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종속 변수 값의 정확한 예측보다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성을 검증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력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독립변수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은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의 경력이 각각 행정가, 경영가, 전문가 출신일 때 주민의 행복은 정치가일 때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경영가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임할 경우 지역 주민의 행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노우영 · 최성락(2007)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노우영 · 최성락(2007)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중 시, 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영가형일 때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띄며, 군, 구의 경우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이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영가형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절대액,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중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형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 이외의 독립변수들, 즉 재선 여부, 소속 정당, 성별과 관련하여, 우선 기초자치단체장이 초선일 경우, 재선일 때보다 주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함의하는 바는, 마찬가지로 노우영 · 최성락(2007)을 변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초선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선 성공을 위하여, 기존에 재선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비하

여 주민의 복지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출과 지역 주민의 행복 간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초선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선 기초자치단체장보다 주민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집권 여당에 소속된 경우, 야당일 때보다 주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권 여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상위정부인 광역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여성일 경우, 남성일 때보다 주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일부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민주주의와 보다 큰 친화성을 갖는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와 주민 행복 간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을 때, 여성의 리더십이 민주주의의 구현과 보다 친화적이라면 주민 행복이 증대되는 효과를 갖게 됨을 가정할 수 있다.

셋째, 통제변수의 경우, 주민의 성별은 주민 행복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연령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주민 행복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 소득은 모두 높을수록 주민의 행복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이 속한) 계층이 높을수록 행복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의 경우, 무직자로 간주되는 학생과 주부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혼인 상태의 경우, 기혼자가 현재 미혼, 이혼 및 별거, 혹은 사별한 자에 비하여 행복한 것으로 드러나 선행연구에서와 논의된 바와 같은 지배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구원 수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행복의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교의 경우,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에 비하여 어떠한 유형이든 신앙을 견지하는 자가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학계의 지배적 견해와 일치할 보였는데, 이 중 유교를 신앙으로 삼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념 성향의 경우, 주민 개인이 보수적일수록 행복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한국적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 개인이 보수적일수록 행복하다는 분석결과 또한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도출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한 수치는 다음 장의 [표 10]과 같다.

[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eta)	t-값	유의 확률	
	B	Std. Err.				
관료 출신	0.053	0.015	0.020	3.46	0.001	
경영가 출신	0.452	0.029	0.069	15.70	0.000	
전문가 출신	0.153	0.020	0.040	7.55	0.000	
단체장 재선 여부	-0.063	0.014	-0.023	-4.57	0.000	
단체장 소속 정당	-0.100	0.016	-0.036	-6.17	0.000	
단체장 성별	0.093	0.023	0.023	3.97	0.000	
주민 성별	0.014	0.011	0.006	1.21	0.227	
주민 연령	-0.106	0.005	-0.134	-19.60	0.000	
주민 학력	0.106	0.008	0.068	13.80	0.000	
주민 소득	0.142	0.005	0.147	29.10	0.000	
주민 직업	상용근로자	-0.058	0.013	-0.024	-4.31	0.000
	임시 및 일용근로자	-0.077	0.021	-0.016	-3.66	0.000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0.001	0.024	0.000	-0.03	0.979
	사업자(고용원 있음)	0.012	0.029	0.002	0.42	0.674
	무급가족종사자	-0.151	0.064	-0.010	-2.35	0.019
	기타	-3.745	1.127	-0.014	-3.32	0.001
주관적 계층	0.118	0.007	0.075	16.90	0.000	
혼인	기혼	0.157	0.018	0.062	8.86	0.000
	이혼/별거	-0.191	0.035	-0.026	-5.40	0.000
	사별	-0.248	0.033	-0.042	-7.49	0.000
가구원수	-0.030	0.006	-0.025	-4.96	0.000	
종교	개신교	0.109	0.012	0.041	9.17	0.000
	불교	0.084	0.017	0.021	4.80	0.000
	천주교	0.163	0.017	0.041	9.36	0.000
	유교	0.961	0.111	0.037	8.67	0.000
	기타	0.417	0.129	0.014	3.24	0.001
이념성향	0.265	0.009	0.123	28.86	0.000	
상수항	5.249	0.049	.	107.16	0.000	
관측치	49,758					
F-값	245.12***					
R^2 (Adjusted R^2)	0.1175 (0.1170)					

* p<0.1, ** p<0.05, *** p<0.01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주민의 행복을 제고시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이 과연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은 과거 경력, 재선여부, 소속 정당, 성별로 구성하였고, 통제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정치가일 때에 비해 행정가, 경영가, 전문가일 때 모두 주민의 행복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영가일 경우 지역 주민의 행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정치가로서 보다 행정가 또는 경영가로서 역할을 할 때 지역주민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인으로서 여러 요소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그리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의 과거 경력 이외의 독립변수들, 즉 재선 여부, 소속 정당, 성별과 관련하여, 우선 기초자치단체장이 초선일 경우, 재선일 때보다 주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을 뿐만 아

나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책보다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집권 여당에 소속된 경우, 야당일 때보다 주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권 여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상위정부인 광역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여성일 경우, 남성일 때보다 주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일부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민주주의와 보다 큰 친화성을 갖는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통제 변수 중 주민 연령, 학력, 소득, 혼인 상태, 종교 등과 행복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된 결과는 선행연구 대부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이할 만한 것은 직업 및 가구원의 수와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그리고 종교 중에서도 유교를 신앙으로 하는 자가 행복의 정도가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인데,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이론적 · 실천적 함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 혹은 시민의 행복이라면,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역설하는 바가 본 연구를 통하여 지지된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 경영인 출신이 리더로서 복무할 때 주민, 혹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본 연구에서 지지되는 바이다.

둘째, 리더십과 행복은 별개의 학문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또 리더십과 행복 둘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실증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는 이 둘의 연결을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규범적으로, 또 직관적으로는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그간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가 비록 많은 한계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연구의 작은 시작점이 된다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경영가라는 과거 경력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임할 때 가장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 이와 같이 주민 행복의 실현과 가장 거리가 먼 정치인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함의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유형이 지역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변수들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주민 행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12년도에 실시된 서울시서베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내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으며, 일개년도의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한계점 또한 갖는다.

따라서 추후에는 위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연

구 모형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연구

- 김명소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 김상곤, 김성중 (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1): 325-351.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예승 (2010). 지방자치단체장 유형과 지역경제 발전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택권 (2007).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단체장 이전 경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7(1): 115-131.
- 김현조, 박영강 (2006). 민선단체장 10주년의 시정성과 평가: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9(2): 139-162.
- 노우영, 최성락 (2005).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5년도 행정학회·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5-379.
- 박영규, 김성준 (2008). 지역상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2): 93-113.
- 박종민, 배병룡, 유재원, 최승범, 최홍석 (1999). 한국 지방정치 의 특징. 「한국행정학보」 33(2): 123-139.
- 박해육, 주재복 (2008).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구: 민선기초자치단

- 체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송건섭. (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 송건섭, 김영오, 권용현 (2008).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2(4): 225-247.
- 시사포커스. 21세기에 선호하는 광역단체장 행정가-기업인-시민단체 활동가 순. 2006년 5월 30일.
- 양덕순 강창민. (2006) 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소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16(2): 129-150.
- 유재원. (1999). 단체장 민선이후 자치단체의 정책변화: Peterson의 도시한계론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8(3):79-98.
- 이광희 (2003). 지방자치단체장 리더십: 지역발전과 리더십 기술의 연계. 「한국행정논집」 15(3): 643-665.
- 이승중 (1995).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자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1-31.
- _____ (1998). 민선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32(1): 147-161.
- _____ (2000).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와 그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34(2): 139-160.
- _____ (2002). 「지방정부의 지도자: 도지사」. 경기: 나남출판사.
- 이승중, 김홍식. (1992).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26(2): 573-589.
- 이창원 (1999).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 행태와 그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33(3): 273-286.
- 이창원, 박희봉 (2005). 리더십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 집단효능감의 매개역할: 한국과 뉴질랜드 단체장 리더십의 비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25-45.
- 이태종, 박철민, 송건섭 (200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분석·평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75-92.
- 임수복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확인 및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조경호, 김정필 (2005).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효과성의 관계: 경쟁가치모형의 적용. 「지방행정연구」 19(4): 59-90.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임곤 (200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범상 정립: 주민의 관점에서 본 실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321-344.
- 주재복, 박해육. (2009).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구: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8(3): 27-58.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8: 575-595.
- 최말옥, 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7.
- 최승범, 이환범. (2003). 기초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647-669.
- 최영출, 이지혜. (2013). 지역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최항순 (2006). 광역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주요단체장들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2): 95-127.

추홍규 (2005).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결정 요인.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해외연구

Adler, M. D. (2013). Happiness surveys and public policy: What's the use? *Duke Law Journal*, 62: 1509-1602.

Andrew, F. M. & Wh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Ball, R. & Chernova, K. (2007).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 497-529.

Bortner, R. W. & Hultsch, D. F. (1970). A Multivariate Analysis of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25(1): 41-47.

Bradburn, N.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Bradburn, N. & Caplovitz (1965). *Reports on Happiness. A Pilot Study of Behavior Related to Mental Health*,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Carson, K. D. & Bedeian, A. G. (1994). Career commitment: Construction of a measure and examination of its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4(3): 237–262.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iener, E. & Seligman, M. E. P.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31.

Diener, E., Horwitz, J., & Eamons, R. A. (1985). Happiness of the very wealth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 263–274.

Diener, E. & Biswas-Diener, R. (2008). *The science of optimal happiness*. Boston: Blackwell Publishing.

Dolan, J. (2000).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 Gender, Attitude, and Representative Bureaucra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3): 513–529.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Paul A. D. & M.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Eid, M. & Larsen, R. J. (2008).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Frijters, P. and Beaton, T. (2008).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Working paper number 26, NCER Working Paper Series.

Gerdtham, U. and Johannesson, M.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553-557.

Hagerty, M. R. &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wealth of nations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27.

Hall, D. T. (1996). Psychological success and the boundaryless career,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0(4): 8-16.

Herson, L. J. R. & Bolland, J. M. (1990). *The urban web*. Chicago: Nelson Hall Publishers.

Inglehart, R. (1990). *Cultural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aldor, P. (1984). *Winds of Change*. Anzea, New South Wales: Homebush.

Kahneman, D. (2005). Objective Happiness. Kahneman, D., Diener, E. D. & Schwarz, N. eds, *Well 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Russell Sage Foundation.

Moberg, D. O., and Taves, M. J. (1965). Church Participation and Adjustment in Old Age. In A. M. Rose and W. A. Peterson (Eds.),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pp. 113-124). Philadelphia: F. A. Davis.

Simring, K. S. (2013). Age brings happiness. *Scientific American Mind*. 24(9) 513-519.

- Smith, W. T. (2007). *Job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 Spreitzer, E., and Snyder, E. E. (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454-58.
- Veenhoven, R. (1999).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_____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Is that Possible and Desir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605-629
- Witt, D. D., Lowe, G. D., Peek, C. W., and Curry, E. W. (1980). The Changing Association Between Age and Happiness: Emerging Trend or Methodological Artifact? *Social Forces*, 58(4), 1302-1307.
- Witter, R. A., Okun, M. A., Stock, W. A. and Haring, M. J. (1984). Edu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 165-173.
- World Values Study Group (1994). *World Values Survey, 1981-1984 and 1990-1993*.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Ann Arbo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Mayoral Leadership Traits on Citizens' Happiness

Min Han Kim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early 1990s, in addition to national elections held for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ave also been held at local and provincial levels in South Korea. On the 2nd of June, 2010, the 5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were held in the nation, and the date marked her 15 years history of embrac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fostering municipal autonomy. Establishment and subsequent enrichment of municipal autonomy in this period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transfer of its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distributional responsibilities to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creasingly responsible for service provision that is vital to daily lives of the citizens residing in their jurisdictions. In the meanwhile, mayors in command of local

governments have served as superlative leaders in their jurisdictions, in charge of not only administrative affairs, but also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taking place within their jurisdictions as well as with others. Thus, it can be argued that for nearly two decades, the role and scope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mayors in charge of them elevated significantly, and it is in this vein the importance of mayoral leadership should be stressed as their discretionary power over local governments (and subsequently over citizens) increased immensely during this period. Hence, an endeavor of empirical examination of which mayoral leadership type best suits for better government facilitating greater citizens' happiness, which is unequivocally the ultimate goal of public administration, is important.

However, thus far, there are only a handful of research efforts linking the mayoral leadership with citizens' happiness, and an empirical research concerning the issue is non-existent. Hence, this study scrutinizes in depth whether the mayoral attributes of incumbents in 25 cities within Seoul Metropolitan City have influences on the happiness of citizens of Seoul. The mayoral attributes under review in this study are their major career backgrounds prior to holding office (categorized as politicians, public sector managers, private sector managers, and experts in other fields), whether they are re-elected or not, their party affiliations, and their genders.

In order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yoral attributes and the happiness of citizens, the data set was collected from a survey in which approximately 49,700 residen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scattered almost evenly among 25 cities responded to. The method used to analyze the data set wa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graphic factors (gender, occupation, education attainment, income, marital status, religion, and family size) were controlle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It was revealed that mayors who had been private sector managers brought about greater happiness to citizens than mayors with other previous career tracks. In addition to this finding, it was also noteworthy that when incumbents were re-elected or affiliated with opposition parties, they were likely to reduce the happiness of citizens. Also, the happiness of citizens was greater when a mayor was female. Lastly, demographic factors' influences over the happiness of citizens we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the precedent study.

Thus far, the majority of leadership literature primarily focused on different manifestations of leadership, and rarely paid attention to the actual influences of leaders on citizens' happiness that might vary depending on their career path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leadership and citizens' happiness as it is the first attempt to establish a link between leadership and citizens' happiness in an empirical manner.

Key Words : happiness, leadership, mayor, local autonomy system

Student Number : 2010-23825